



문학, 그 따사로운 동행

글 | 김수인(順德)

작가
한국문인협회 회원
ksd2530@hanmail.net



도서관 포커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의 일이다. 필자는 수원시청소년 문화센터 한아름도서관과 연계된 글짓기 교실을 맡아 문학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일은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이하 작가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졌는데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러, 그 당시의 또렷한 기억보다는 그저 행복했고 즐거웠던 일로만 마음속에 남아 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일을 상기하게 된 지금,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은 필자가 지도한 수강생 중에 한국여성문학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동서커피문학상'에 글을 응모하여, 금상을 수상한 허이영 씨가 있다는 사실이다. 허이영 씨는 '바지랑대'라는 수필로 동서커피문학상에 응모를 했는데 그 글은 촘촘한 문장과 세부적인 묘사가 돋보였던 작품이다. 그로 인해 허이영 씨는 금상 수상의 영예와 함께 여러 가지 엄정한 절차를 밟아야만 회원이 될 수 있는 한국문인협회의 회원으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또 한 명의 수강생이 생각나는데 그분은 강명숙 씨이다. 강명숙 씨는 참으로 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 오랜 기간, 혼자 습작을 해 왔고, 작가의 꿈을 꾸어오던 그녀였기에 필자는 그녀의 글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강명숙

씨는 그 어느 수강생보다 틈만 나면 필자에게 자신이 쓴 글을 보여 주며, 필자의 설명에 대해 귀담아들었다. 그녀의 문학에 향한 열의는 적극적이었다. 그러한 노력으로 강명숙 씨 역시 동서커피문학상 맥심상에 입상하여,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았다. 그 후로도 강명숙 씨는 많은 노력 끝에 문단에 등단하여, 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 김수인 작가와 함께하는 글쓰기교실

그리고 보면 그때의 작가파견 사업의 수업은 필자와 수강생 모두가 참으로 진지했고, 허이영 씨와 강명숙 씨에게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해 준, 문학의 길을 향한 징검다리 가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한 명의 수강생이 생각한다. 그는 장수만 써었는데 가끔은 수업시간에 졸음을 참지 못해 눈을 스프르 감고 졸곤 했다. 그 일로 다른 수강생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는데 그 림에도 장수만 써는 한 편의 시를 말 그대로 똑딱 써내곤 했다. 시를 쓰는 능력이 깊어, 그가 쓴 시를 들려주면 수강생들은 '우와!' 하고 감탄을 하기도 했다.



▲ 김수민 작가와 함께하는 글쓰기교실

수강생 중에는 필자의 친구도 있었는데 친구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필자의 강의를 들었다. 필자가 그녀의 글을 수정해 주면 그녀는 몹시 기뻐했고, 열심히 참여했다. 이 외에도 글 실력이 좋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이름들이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개구쟁이 같던 초등학교도 있었는데 그 아이는 필자가 가르치던 까다로운 한글맞춤법과 표준어충적을 잘 이해했다. 필자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무엇보다 글쓰기의 기본인 문장의 어순, 띄어쓰기, 맞춤법, 문장부호, 표준어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세세하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초등학교의 어머니도 아들의 글 쓰는 능력이 늘어난 것이 신기했다며, 아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했다.

돌이켜 보면, 작가과건 사업의 글짓기 교실에 참여했던 분들은 한결같이 글을 배우고자 하는 욕망들이 가득했고, 필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은 쉬는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자고 했고, 점심시간에도 매점이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보다 간단한 김밥이나 빵을 강의실에서 나눠 먹으며, 시간을 아

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필자는 그러한 수강생들의 깊은 성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에 임했다.

글짓기 교실 초반엔 글쓰기의 기본인 한글맞춤법을 지도했다. 다음으로, 표준어 규정인 표준어사정원칙, 교정부호, 표준어의 실제 문법 등을 지도했다. 이어서 좋은 글의 조건에 대해 토론했고, 문장과 문법을 설명했으며, 문학의 본질과 기능, 문학과 언어 등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시의 구성요소와 표현, 시 작품 토론을 통한 실기지도와 수필의 개념과 특성, 수필작법, 소재 찾기, 서두와 결미, 제목 붙이기 등에 대해서도 지도했다.

무엇보다 필자는 원고지 쓰는 법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띄어쓰기 하나, 문장부호 하나가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수강생 작품발표 및 낭송을 하게 하였고, 한 편씩의 글을 써오게 하는 숙제를 내기도 했다. 야외 수업으로는 안성에 있는 조병화문학관 탐방을 하기도 했다.



▲ 조병화문학관 탐방

모든 강의가 끝나던 날엔 필자에게 수강생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아쉬운 표정을 지어 하마터면 필자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하늘을 보았다. 수강생들이 마음을 모아 전해준 부드러운 느낌의 스카프를 선물 받았을 때 행복감에 젖어 푸른 초원을 걷는 기분이었다. 어쨌거나 필자는 내 인생의 소중한 행복했던 시간을 말하라면 필자는 그 때의 작가과건 사업의 수업을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다. ●